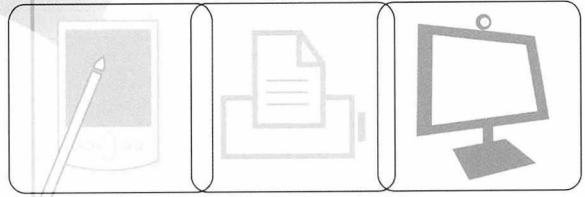


오피니언



# 우리는 정말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가?

지난 9월30일 무역협회가 세계은행 · OECD · WTO · UN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전문조사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인용, 발표한 <207개 경제 · 무역 · 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에 따르면 우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21.3명으로 2, 3위를 기록한 홍콩(14.6명) · 캐나다(11.5명)를 큰 차이로 앞섰으며, 인터넷이용자 수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자정부 지수는 133개국 가운데 15위였고, PC보급대수는 100명당 55명으로 163개국 가운데 8위, 정보화지수는 89점(100점 만점)으로 50개국 중 6위에 올랐다. 이처럼 한국은 정보사회의 선두주자임을 자임해왔다.

사실 우리 사회만큼 정보사회에 대한 열광이 대단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정보사회로 불리는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쉽게 노출된다. 사이버 아파트 광고에서 사이버 이미지를 강조하는 가요까지 '사이버사회'는 의심할 바 없는 현실로 자리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정보사회론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사회 이데올로기는 미디어를 통해 평범한 일상영역에까지 침투해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 도대체 정보사회란? ●●●

우리가 당연하게 말하는 정보사회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정보사회이기는 한건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회도 오늘 우리 사회만큼

이처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신비화된 적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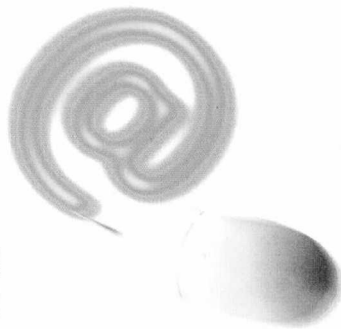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메시지와 정보라는 신비화의 매개물로 포화되어 있다.

- Mark Poster

정보사회론자 마크 포스터의 이러한 경구는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에서는 정보사회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단지 기존관계의 정보화 개념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사회와의 차이(differences)에 의해 특징되는 정보사회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 시기의 핵심적 특징은 과거와의 연속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보폭발이 진행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지만, 정보사회를 둘러싼 개념적인 혼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개념이 개념상의 부정확성과 질적인 척도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정보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질적인 잣대를 필요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보폭발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 및 확장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 정보사회에 대한 긍정과 부정 사이 ●●●

정보사회에 관한 긍정적 인식은 기술중심사상에서 직접



적인 출발점을 갖는다. 기술결정론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기술관련 논의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

하고 있는데, 기술을 도구성과 중립성이라는 두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미래 학자들에 의해 사회일반에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소위 정보사회론자라고 하는 부류의 논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은 정보화의 긍정적 단면들을 강조하며 정보사회의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을 띤다.

공상과학에서 출발한 미래학은 2차대전 이후 방대한 자료 및 분석기법을 겸비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매클럽(Machlup, F.)이나 포랫(Porat, M.) 등 정보경제론자들을 거치면서 정보사회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사회론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간의 단절성을 강조한다.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 기술개발로써 해소 가능한 한시적 부작용으로 간주한다. 정보사회론은 신기술개발을 통해 인류사회가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한다는 기술중심적 진보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반유토피아적 입장의 기술비판론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이 그 적용과정에서 비인간화를 촉진하는 통제불능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과학기술은 인간활동을 자체적 요구에 복속시키는 자율적 체계이며, 인류는 자신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기술을 도리어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점을 명제화하고 있다. 이들의 사상적 근원은 헉슬리나 오웰 등 반유토피아주의자들의 사상에서 출발해 머포드나 엘웰 등의 사상으로 구체화된 기술비판론인데, 과학

기술의 적용과정에서 비인간화를 촉진시키는 통제불능의 속성을 강조한다.

이들 정보사회비판론자들은 정보사회론이 미래사회를 기술합리성에 근거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정보기술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과 갈등관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정보사회로의 이행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안정화나 기존 지배계급의 이익관철이나 입지강화를 위한 매개적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정보사회라는 개념설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띤다.

양적으로는 정보사회, 그러나 질적으로는... ●●●

사실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구조적 우위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군사기술, 우주기술의 개발로 인한 부수적 효과인 셈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은 항상 최첨단 상업기술로 전환이 용이하다. 인터넷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앨 고어는 '정보초고속망'의 건설을 제의했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를 미국정부가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정보사회론은 어쩌면 미국에만 해당하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결국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 정보사회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의 특징을 탐구하는 데에는 발견적(heuristic) 도구로서는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규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부정확한 것이다.

여기서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양적인 접근법이, 일상적이고 비핵심적인 정보활동과 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한 정보활동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질화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보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정의는 양적인 척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척도로 측정된 정보가 지배적이 되는 어떤 불특정한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되고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만 가지고 새로운 사회라고 규정할 만한 분명한 근거는 없다.

단순히 정보가 많은 것을 측정하는 양적인 척도 그 자체로는 과거 사회의 단절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소규모이지만 결정적인 질적인 변화는 체제상의 단절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정보사회를 새로운 유형의 사회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순환되는 정보의 양, 정보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 등과 같은 것을 계산함으로써 질적인 변화가 정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의 가정은 양적인 증가가 사회체계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보화된 사회가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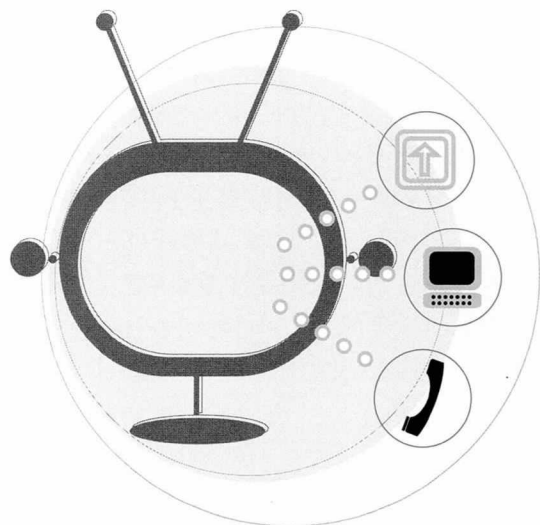
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질적인 근거에서 차별화시키려 한다.

'더 많은 양의 정보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라는 정보사회론자들의 주장에 반해, 로작(Theodore Roszak)은 문명화 과정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핵심적 사고(master ideas)는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아이디어들은 모두 정보 이전에 생겨난 것이다. 사고와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질적인 관련이 정보에 대한 양적인 접근에 앞선다. 정보사회이론가들이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생각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와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 신화와 이데올로기 ●●●

'정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미론적(semantic)인 것이다. 즉 정보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정보는 또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이다. 그런데 정보사회론에서 정보는 비의미론적 방식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정보는 비트(bits)로 측정될 수 있는 양이며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정보개념을 수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의미의 쟁점과 의미에 필수적인 정보의 질의 문제를 배제하게 된다. 정보는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정의되며 에너지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정보사회 이론가들은 정보의 증가에 대한 양적인 척도를 만들기 위해 정보의 개념으로부터 의미를 버리고 나서, 정보의 경제적 가치, 생산되는 규모 또는 단순히 주위에 나오는 상징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사회가 크게 의미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 결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동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정보사회가 무엇이고 다른 사회와 어떻게 다른지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의미와 질을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종류의 정보가 증가하였고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냈으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정보의 의미와 질의 문제를 확고하게 다루고자 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더 많은 정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그 내용과 별도로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어떤 정보인가') 정보의 생산이 정보사회의 이행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정보사회를 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축적한 지식을 나눠 갖는 것이라지만, 이는 신기술과 관련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적용되는가를 무시한 신화이며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정보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관리하고, 모든 지식을 조직적으로 상품화하는 것이며,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알못게도, 우리가 기술의 열매인 유토피아의 꿈에

한층 더 가까이 왔다고 보이면 보일수록

미래에 더욱 더 많은 결함 사회(디스토피아)가 나타난다.

- Jeremy Rifkin

제레미 러프킨(Jeremy Rifkin)은 <The Age of Access>에서 '소유의 종말'을 선언한다. 이제는 '접속의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접속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소유조차도 힘겨운 80%의 인구가 있다. 소유하고 접속할 능력을 가진 20%가 나머지 80%와 맺고 있는 관계의 핵심은 역시 '소유'인 것이다. 인류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뚜렷이 나뉘어 교류가 불가능해지고, 네트워크를 장악한 소수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접속을 관리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운명까지 좌우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소유의 개념은 유효하다. 단지 공간이 바뀌었을 뿐이며, 더욱 복잡미묘한 양상을 띠 뿐이다. 사이버공간은 지배의 새로운 공간이며, 착취의 새로운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네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해●●●

정보사회적 담론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기술에 의존해 설명하고 해결하려는 기술결정론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보사회론의 독선, 독단을 통어해야 할 부정적 담론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 이외의 기술발전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외면함으로써 경제결정론적인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결정론 및 경제결정론으로 귀착되는 기존의 기술사회 연구관점들은 급변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균형적 분석시각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기술혁신에 대한 안이한 기대를 경고하는 뜻에서 테크놀로지 발전의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기술진척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기술진척으로 인해 어느 한편은 발전되지만 다른 한편에선 후퇴하는 면이 병행된다. 또한 모든 기술진보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제기를 더 많이 결과할 수 있고, 기술혁신은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의 본질은 반드시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술혁명의 효과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일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다.

<김원제 · 디지털칼럼니스트>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보사회라는 사회변동의 한 전환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실체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정보사회의 개념화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기술적 변화가 너무 급속히 전개되었고, 정보기술의 잠재성에 의존된 미래지향적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도되기 전에 단편적인 기술반응의 관찰이나 연구자의 선입견에 따라서 낙관적 관점과 회의적 관점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